제6강 습관의 문제

(1교시)

◆행위, 반복, 일반성
※학습목표: 행위가 왜 반복이고, 반복으로 이루어진 현재가 왜 일반성을 갖는지 살펴본다.

▲습관의 반복에 대한 오해
「*습관을 반복에 의존하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주는 이유들을 이리저리 끌어 모으는 것은 쉬운 일이다. 행위한다는 것은 있는 행위 안에서건 이미 이루어진 행위에서건 결코 반복한다는 것이 아니다.*」
-행위한다는 것은 항상 차이를 동반하고, 일반적인 의미에서 반복을 얘기한다는 것이 아니다.

▲행위에서의 일반성 요소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오히려 행위는 특수한 것을 변수로 취하고, 일반성을 요소로 삼는다.*」
-물질적인 반복만 본다면 딱딱 끊어진다. 그래서 만약에 물질의 세계만 있을 때는 차이는 없다. 주체가 경험하는 차원에서 물질적 반복을 잇고 이때 차이를 주체가 이끌어내는 것이다.
-전통적 철학에서는 능동적, 반성적 차원에서 주체를 말한다. 그러나 들뢰즈가 말하는 주체는 그 아래의 차원의 주체다. 그래서 주객이 경험의 차원에서 공존한다.

▲생성, 무의식의 주체와 윤리
-주체성과 개체성을 그 아래 존재하는 것은 무의식, 생성이다. 그런 존재론적인 자연철학적 맥락에서 그 근거를 보여주는 식의 철학은 항상 윤리와 정치 문제에 부딪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인간 사회의 윤리나 정치는 반드시 행위 주체가 필요하고 책임이 동반되어야 한다. 그런데 무의식이나 생성 쪽으로 가는 사고들은 법적, 윤리적, 정치적 주체성을 설명하는 데 난점이 있다. 그래서 동시에 책임의 문제도 없게 된다.
-들뢰즈는 생성과 무의식 이론의 연장선상에 있으면서 과연 어떤 주체론과 윤리, 정치학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련해서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

▲일반성과 반복
「*하지만 일반성이 반복과는 전혀 다른 사태라는 것이 사실이라 해도, 일반성은 반복에 의존한다. 반복은 일반성이 구성되는 숨겨진 기저이다.*」
-만약에 어떤 대자적 차원이 개입하지 않는다면, 물질적 반복은 하나의 의미없는 명멸 혹은 계기succession다. 이 계기를 이을 때만이 흐름passer이 생긴다.
-현재는 사실 그때그때의 특수다. 그러나 현재가 과거로 계속 누적되어가고 미래가 흘러들어오는데, 이런 과정에서 일반성이 된다.
-시간을 만들고 현재를 구성하고 다시 미래와 과거로 일반성을 만드는 것은 주체다. 하지만 이것이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들과 맞물려 간다.

www.artnstudy.com

(2교시)

◆차이와 반복 그리고 들뢰즈의 존재론
※학습목표: 차이와 반복이 자아 혹은 존재를 어떻게 이루고 있는지와 들뢰즈의 존재론을 알아본다.

▲큰 주체의 성립과 수축
「*행위가 일반성의 질서 안에서, 이 질서에 상응하는 변수들의 영역 안에서 구성된다면, 그것은 오로지 반복 요소들의 수축을 통해서만 그러하다.*」
-반복하는 객관적 사건들이 수축을 하면서 주체가 성립한다. 이것은 경험주의적 입장이다.
-그리스, 로마, 중세로 넘어오는 형이상학적 체계에서는 영혼이 그냥 주어진 것이다. 그러나 경험주의 입장에서 주체는 경험을 통해 이루어진다. 단, 수축하는 능력은 타고난다. 하지만 이 능력도 잠재적virtual인 것이다. 그 잠재성이 현실화되려면 반드시 객관세계와 접촉이 이루어져야 한다.

▲행위들의 요소역할
「*이 수축은 단지 행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를 이중화하는 어떤 응시하는 자아 안에서도 이루어진다. 그리고 여러 행위들을 훨씬 복잡한 행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처음의 행위들이 다시 어떤 '경우' 안에서 반복 요소들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AB AB...에서 A는 요소이며, AB는 경우다. 경우들은 훨씬 복잡해서 A와 B 사이에서 이미 복잡한 수축이 벌어진다.
-어떤 행위들이 통합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들이 경우 안에서 반복 요소들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작은 자아
「*하지만 이런 역할은 언제나 합성된 행위 주체의 기저에 놓인 어떤 응시하는 영혼과 관련해서 주어진다. 행위 하는 자아 아래에는 응시하는 <u>작은 자아들</u>이 있다. 행위와 능동적 주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이 작은 자아들이다. 우리가 '자아'를 말할 수 있다면, 이는 오로지 우리 안에서 응시하는 이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자아를 말하는 것은 항상 어떤 제 <u>삼자</u>다. 심지어 미로의 쥐 안에도, 주를 이루는 각각의 근육 안에도 이 응시하는 영혼들이 있다고 해야 한다.*」
-이 작은 자아는 나중에 애벌레주체라고 부른다.

▲뒤로 물러선 응시
「*그런데 응시는 어떠한 행위의 순간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응시는 항상 뒤로 물러서 있다. 응시는 어떤 것도 '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응시를 망각하기 쉬우며, 반복을 전혀 끌어들이지 않고 자극과 반응의 전 과정을 해석하기 쉽다. 왜냐하면 반복을 끌어들이는 것은 단지 자극 및 반응들과 응시하는 영혼들의 관계 안에서만 볼 수 있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반복과 응시, 상상

www.artnstudy.com

「반복에서 새로운 어떤 것을 훔쳐내고 반복에서 차이를 훔쳐내는 것. 이는 상상의 역할이거나 다양하고 조각난 상태에서 응시하는 정신의 역할이다. 게다가 반복은 본질상 상상적이다. 왜냐하면 여기서 상상만이 구성의 관점에서 반복적인 힘의 '계기'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상상은 자신이 수축하는 것을 반복의 요소나 경우들의 자격에서 실존하게 해주면서 그런 계기를 형성한다.」

-이 부분의 상상imagination은 애초에 사물을 지각해서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원초적 과정을 말한다. 그래서 상상은 수축하는 행위다.

-다양하고 조각났다는 것은 아직 능동적 자아로 통합되기 이전이란 말이다. 수학적으로 비유하면 미분된 상태다. 이 미분된 작은 자아들이 접근되어야 통일된 능동적 자아가 성립한다.

▲차이와 반복

「상상적 반복은 참된 반복의 부채를 보충할 어떤 거짓된 반복이 아니다. 참된 반복은 상상에서 나온다. 즉자의 상태에서 끊임없이 와해되는 반복과 재현(표상)의 공간 안에서 우리에 대해 펼쳐지고 보존되는 반복 사이, 그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그 차이는 반복의 대자적 측면이고, 이 측면은 상상적인 것이다. 차이는 반복에 거주한다.」

-이 부분의 상상은 현대적 의미의 상상이다.

-즉자적 반복과 대자적 반복에는 차이가 있다. 반복에 즉자적 측면만이 아니라 반복의 대자적, 상상적 측면이 가미될 때, 차이가 발생한다.

▲수평구도와 수직구도

「수평적 구도에서 볼 때 차이는 우리로 하여금 반복 안의 한 질서로부터 다른 질서로 옮겨가게 해준다. 이때 우리는 즉자적으로 와해되는 순간적인 반복에서 출발하여 수동적인 종합을 경유하고, 이를 통해 능동적으로 재현된 반복으로 이행한다. 다른 한편 수직적 구도에서 볼 때 차이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반복의 질서로부터 다른 반복의 질서로 옮겨가게 해준다. 이때 우리는 수동적 종합들 자체 안에서 하나의 일반성으로부터 다른 일반성으로 이행한다.」

-수평구도는 즉자적 반복에서 대자적 반복을 옮겨가는 식의 구도다.

-수직구도는 능동적, 대자적, 무의식적, 신체적, 물질적으로 내려가는 차원의 구도다.

▲수직구도의 예

「끄덕거리는 병아리의 머리를 보라. 그 끄덕임은 유기체적 종합안에서 일어나는 심장의 박동들을 동반하고 있다.」

▲들뢰즈의 존재론ontology

-개체들(명사), 성질들(형용사), 사건들(동사)는 우리의 현실적인actual 경험의 차원이다. 우리 현실의 ontology는 이 세 가지다.

-고대, 중세의 ontology는 이 현실적인 것을 보다 위에 있는 것으로 설명하려 했다. 그 대표적인 것이 idea, 신, 하늘, 섭리다. 반면 근대 이후의 ontology는 보다 아래 있는 것으로 설명하려 하였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물질matter이다. 그러나 베르그송이나 들뢰즈는 근대 이후의 ontology도 고중세의 ontology와 다를 것이 없다고 한다. 왜냐면 물질도 하나의 동

www.artnstudy.com

일성identity를 전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들뢰즈는 어떤 identity도 설정하지 않는다. 어떤 identity도 설정하지 않는 ontology다. 이는 세계가 절대적 생성absolute becoming이란 뜻이다. 어떤 동일성도 전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현실세계를 설명하려는 것이다.
-전통철학에서는 개체, 성질, 사건은 불완전한 동일성이다. 이런 철학 내에서는 현실은 항상 모자라다. 한편 들뢰즈의 철학은 완벽한 생성으로부터 동일성을 어떻게 이해할까를 생각한다. 통속적 의미의 동일성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동일성들을 이해하려는 것이다.

www.artnstudy.com